

취업 성공 스토리

GC녹십자웰빙

양진영 / 농식품생명화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합격기업 GC녹십자웰빙/품질보증

기본스펙 학점 : 3.83 / 토익 : 940점, OPlc : IH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중소기업 품질팀 현장실습 (120h)

공모전 없음

봉사활동 라오스 해외봉사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학과 학생회(학생회장)

단과대 봉사동아리

학과 축구소모임

직무교육(생산관리전문가과정 300h)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인력양성사업 (GMP)

자격증

전공 없음

일반 6시그마(GB),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기소개서(기업에 제출 했던 내용)

1.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십시오.(800)

“어제보다 오늘 더”

끈기와 도전정신이 저의 장점입니다. 학부 1학년 시절, 해방감에 취해 학업을 소홀히 한 결과 평점 2.15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 학습되어야 했던 기본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저를 바꾸기 위한 도전을 위해 스톱워치를 사용했습니다. ‘어제보다 30분 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스톱워치로 실 공부량을 측정했습니다. 2시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10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전으로 2학년 1학기 평점 3.58부터 4학년 2학기 평점 4.50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끝까지 완수하고 그 결과로 오는 성장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목표를 향해가는 첫걸음의 방향을 잘못 디딜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래너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너는 저의 장점인 끈기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제가 하는 일이 목표에 적합한지, 방향성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래너를 이용한 꼼꼼한 계획을 통해 짧은 시간에 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끈기와 도전정신을 업무에 적용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민으로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탈이나 부적합 등의 Event들을 개선하겠습니다.

2. 지원 직무의 필요 역량 3가지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한 것을 기술하십시오.(800)

“전공지식”

학부 시절 수강한 전공과목을 통해 생명공학에 대한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인체 내 반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이해는 곧 품질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의 책임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QA와 밀접한 관계인 QC에서 다루는 시험법과 분석 기기를 공부하며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 중입니다.

“공정의 이해”

중소기업의 품질팀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 시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생산공정을 시각화해서 이해했습니다. 공정의 파악은 불량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의 이해가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품질을 다루는 업무가 생산업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공정을 검토하여 SOP를 개선하거나 GMP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역량”

SOP, GMP 등 관련된 문서들을 다루는 것은 품질보증직의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OA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을 취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SOP 와 제조 지시 및 기록서 등 실사 대상인 문서 대부분이 영문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사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고 그 결과 어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저의 역량을 이용하여 더욱더 신뢰 있는 GC녹십자웰빙을 만들겠습니다.

입사지원경험

1. 지원회사 : GC녹십자웰빙

2. 지원직무 : QA

3. 인성·적성 검사 후기

녹십자 그룹은 녹십자EM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적성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고 인성시험만 치르기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입사 후에 알게 된 정보로는 지원자의 인성을 12각형의 데이터로 도출하여 결과지가 나오고, 이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지원자인지 A+, A, B+ 등 등급으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성검사를 볼 때는 좀 더 주의 깊고 신중하게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녹십자의 인성검사는 여러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6개의 답안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성검사를 할 때 품질을 다루는 직무이기에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어필하자'라고 마인드 셋을 하고 들어가서 원칙에 어긋나는 질문은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가끔가다 상식문제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낯시성 질문일 수 있기에 매우 솔직하게 모른다면 '매우 그렇지 않다'또는 알고 있다면 '매우 그렇다'라고 확실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론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A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론일 수 있기에 모른다면 '매우 그렇지 않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종종 그렇다'등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답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똑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검증하려는 항목으로 생각되어 일관된 답을 체크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성검사이기에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지원자분들의 특성 중 직무역량에 필요한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 솔직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면접후기

다른 여느 회사와 같이 1차 면접인 실무자면접(직무면접)과 2차 면접인 임원면접(인성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면접은 근무지인 공장에서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은 서울 여의도의 본사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음성공장을 지원했기에 교통 편이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1차 면접과 2차 면접 모두 그 전날 올라가 숙박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음성공장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성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기에 그 전날 올라가 면접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1차 면접

시간대별로 조가 편성되어 있고, 저는 제 기억상 9시 30분 조였던 것 같습니다. GC녹십자 음성공장에서 치르게 되고 30분 전에 도착하여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면접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인사팀 직원들이

있었고 조금 대기하니 그전 시간대의 면접자들이 들어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원 수를 제한하는 느낌이었고, 저는 저 포함 2명이 1개 조로 약 1시간 동안 면접을 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2명이 질문을 받았기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면접은 공장 지하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면접관으로는 공장장님, 품질팀장님, 지원팀장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긴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원자에 대한 예의를 매우 갖추주었고, 인상 깊었던 것은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키기 전에 먼저 회사의 소개를 해주시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관분들 중 흔히 말하는 악역을 맡으신 분은 없어 보였고, 다들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어 면접이지만 편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내용

- 자기소개
- QA 지원 이유
- QA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역량
- 2개월 전의 약속과 급한 업무가 겹쳤을 시 대처
-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
-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 가족 중 사이가 안좋은 사람 있는지
- 화났던 경험
- 어떻게 대처했는지
- 6Sigma 취득 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 6Sigma를 한문장으로 설명한다면?
- 봉사경험
- 본인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던 경험
- 본인의 아이디어로 성과를 낸 적이 있는지
- 흡연여부/주량
-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2) 2차 면접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되고, 1차 면접과 마찬가지로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에서 대기로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1차 면접과 동일하게 시간대별로 조가 편성되어 있고, 저는 2시 30분 조로 QC지원자 1명과 저를 포함한 QA지원자 총 2명이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40분 동안 질문을 받았고, 1차 면접과 다르게 면접관분들이 차가우시다는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면접관으로는 2분이 들어오시고 대부분이 공통질문이었다가 개별질문을 2~3개 정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

- 자기소개
- 존경하는 사람
-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인과 가장 안맞다고 생각하는 성격은?
- 입사 후 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 회사에 대해 아는 것 모두
- 본인의 장단점
- 회사 지원동기
- 입사 후에 꾸준히 하고 싶은 자기개발 분야
- 스트레스 푸는 법

5. TIP

1차와 2차 면접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비중을 비교하자면 1차 면접이 실무진이기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 면접의 질문에서 굳이 집요하게 직무관련 질문을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인재상은 거의 달달 외울 수준으로 자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인재상에 끼워 맞추는 답은 오히려 답변의 내용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움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A의 지원자라면 어학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에 자기소개, 장단점, 지원 동기, 포부 이 4가지의 질문은 꼭 영어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시 같이 면접을 보는 옆 지원자의 답변에 너무 기죽지 않고 듣는 척만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내 답변을 되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